

세대론으로서 중 2 병의 징후적 의미 연구

김연주
(연세대학교)

한국어 요약

본 연구는 일본에서 유입된 후 한국 대중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중 2 병’ 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세대론으로 규정하고 이 용어의 쓰임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중 2 병’ 이 규정하고 있는 증상은 누구나 보일 수 있는 언행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을 지칭한다. ‘중 2 병’ 은 한국 사회의 십대들이 입시중심의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고통과 이에 대한 저항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이를 ‘질병화’ 하여 십대들을 ‘환자’ 로 규정함으로써 십대 개인과 부모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성장하고 있는 십대들과, 이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하면서 경쟁과 복종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와의 갈등이 ‘중 2 병’ 으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 사회는 ‘중 2 병’ 의 창궐을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과 십대들에 대한 존중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핵심어

중 2 병, 세대론, 십대, 입시교육, 미성숙

문제제기

‘중 2 병’ 은 한국 사회에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조어지만, 십대와 그 부모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사회 성원 대부분이 알고 있을 정도로 널리 유통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중 2 병 자가 점점 테스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중 2 병이라도 사랑이 하고 싶어!」 는 한국에서의 인기로 힘입어 2014 년 2 월에 개봉되기도 했다.

중 2 병이라는 단어는 1999 년에 일본에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주인 히카루의 앱스: 심야의 대단한 힘 伊集院光のアップス: 深夜の馬鹿力」 이라는 라디오 방송이 ‘중학교 2 학년 시기에 할 법한 허황되고 우스운 행동’을 주제로 청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겨났다. 한국에서는 2010 년에 웹툰 「짜우자 귀신아」 에 중 2 병이 등장하는 등 (중앙일보, 2013.4.6.) 2010 년을 전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중 2 병은 “사춘기 시절에나 어울리는 철없는 망상” (김성윤, 2014),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불행하고 고독하며 세상을 등진 존재라 여기는 증상을 몇 학년 더 먹은 사람들이 비꼬아 만든 신조어” (임인스, 2010)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본에서 유래한 중 2 병은 한국에서 원래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북한이 남침을 하지 않는 이유가 중 2 때문” 이라는 우스갯소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것 같은 무모

한 패기를 빗대는 말이었다 (권재원, 2015). 그러나 이 말은 점점 중학생들의 불량한 수업 태도 및 학교 폭력과 연결되어 그 정도의 심각성을 뜻하게 되었다.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성적 폭력도 발생하고, 동급생들뿐 아니라 교사도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한국에서 학생의 문제적 행동은 곧 가정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중학생을 다루기 벅차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중 2 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교육청에서도 이에 개입하고자 하였다. 2013년에 당시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문용린 교육감이 ‘중 2 병’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단축 마라톤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 2 병’을 마라톤 강제 참여로 치료하려 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대중들에게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다. 여론이 좋지 않고, 문용린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면서 이 방침은 유야무야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개입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쳤지만 ‘중 2 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 2 병은 비단 중 2 에게만 국한된 증상이나 명명이 아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허세, 걸뻐, 냉소, 자의식 과잉, 유치함, 망상 등을 보이면 중 2 병이라고 명명된다. 한국에서는 성인에게도 “그 사람 중 2 병이야”라고 지칭한다. 이처럼 누구나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사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만, 그러한 증상을 중 2 로 특징한다는 점에서 특수적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중 2 가 이러한 증상을 대표하는 기표가 되었을까.

본 연구는 ‘중 2 병’이라는 신조어가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는 현상에 착목하여 ‘중 2 병’이라는 용어와 그것이 유행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유입된 용어인 ‘중 2 병’이 한국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중들이 이 용어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공감이 어디에 기인하는지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

연구자가 ‘중 2 병’을 주요한 문화 현상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일본에서 유입된 ‘중 2 병’이라는 용어를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현실에 주목하였기 때문이다. 등장했다 금세 사라지는 수많은 용어들과 달리 ‘중 2 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새로운 용어로 자리잡았다. 이는 한국인들이 ‘중 2 병’이라는 용어에 공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래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긍정적 의미를 지녔던 ‘중 2 병’에 부정적 의미가 부착되었으며, 중 2 라는 특정 연령을 넘어 연령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등 의미가 확장되었다. 심지어 교육감이 현재의 교육 문제를 상징하는 용어로 지목하여 교육청이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등 ‘중 2 병’을 둘러싼 한국 문화의 현상은 다층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중 2 병’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는 ‘중 2 병’이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용어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 2 병’이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합리화의 기제로 사용되는 반면, 대중적으로는 농담처럼 장난스럽게 사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중 2 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들

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중 2 병’이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필요에 따라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바로 이러한 쓰임이 ‘중 2 병’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중 2’라는 특정 연령과 ‘병’이라는 용어의 결합, 그리고 이것이 사용자들에 따라 다르게 전유되는 현상이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세대’ 특히 ‘십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 2 병’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중 2 병’에 대한 대중서들은 간간히 출판되고 있다. 이들 대중서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부모들이 중 2 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한 자녀교육서로서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과 조언을 담고 있다. 김현수 (2015)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중 2 병의 증상, 원인, 대처 방안 등을 알려준다. 특히 시대의 변화와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언행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노규식 (2015)은 중 2 병으로 인해 자녀들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을 말한다. 부모들에게 중 2 병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중 2 병의 당사자인 십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다. 이진아 (2014)는 다수의 부모와 십대들과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십대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십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고자 한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015)은 중 2 병에 대해 언론이 주로 성인들의 시선을 다루어 온 경향을 지적하고 십대들을 인터뷰해 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들이 처한 현실을 분석하였다.

이처럼 대중서로서의 특징을 살린 문헌들이 존재하는 반면 한국 학계에서 중 2 병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십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십대에 대한 비교 연구도 다수 있지만 중 2 병을 주제로 한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십대에 관한 비교 연구는 교육, 진로, 학교 폭력, 성 등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강영배, 2013; 도중진, 2009; 성윤숙 외, 2014; 송태민 외, 2015; 오해섭 외, 2014; 이경상 외, 2013; 이승현 외, 2014; 이창호 외, 2013; 정재준, 2012). 이 연구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십대를 보호하고 이들이 학업에 전념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 교류가 활발하며, 법과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학교 폭력, 고령화, 자살 등의 사회 현상들이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본은 한국의 주요한 참조 국가이다.

청소년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에서 논의 되는 연구는 이승연 (2014)과 정재걸 외 (2015)의 연구이다. 이승연은 일본의 마음 교육을, 정재걸 외는 일본의 죽음 교육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교육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물질적 가치나 효율성이 아닌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현재 한국의 도덕 교육에 새로운 시선과 교수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의 원인은 현재 한국의 도덕 교육이 아니라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지나친 경쟁이다. 위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입시가 목표가 된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인성 교육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연구자의 언어 능력의 한계로 일본의 ‘중 2 병’ 현상에 대해 연구 할 수 없고, 관련 문헌도 검토 할 수 없다. 게다가 전술했다시피 한국에는 ‘중 2 병’에 대한 학술연구가 없어 한일 비교 연구 또한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이와 같은 연구 지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 2 병’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회구조적’이라는 용어는 ‘중 2 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지칭한다. 한일 비교 연구들이 보여 주듯이 한국의 십대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심각한 심리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 2 병’은 십대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은유일 수 있으며, 그 원인은 사회에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중 2 병’은 기성세대들이 이해하기 힘든 십대들의 언행을 십대들의 호르몬과 미성숙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중 2 병’은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중 2 병’이 십대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보고 하나의 ‘세대론’으로 접근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십대는 ‘중 2 병’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십대 중반을 상정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국의 다양한 세대명과 ‘중 2 병’의 위치

‘중 2 병’은 특정 연령대를 지칭해 그들의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세대론이다. 세대란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유사한 의식, 태도, 행위양식을 가지며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류의식을 갖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박재홍, 2003).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젊은 세대에 대한 명명은 1990 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당시는 한국 사회가 대중소비사회로 진입하고 정치적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지구화와 탈냉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변화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는 소비·개인·탈권위 지향적 성향을 나타냈고 이들은 고유명사로서 ‘신세대’라고 명명되었다 (박재홍, 1995). 신세대 담론이 등장한 이후 X 세대, N 세대, W 세대, P 세대, 88 만원 세대, 촛불세대, 2.0 세대 등 수많은 용어가 생겨났다.

세대마케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X 세대’는 1990 년대 초에 등장했는데, 이전의 세대들과는 달리 규정이 불가능한 세대란 뜻에서 X 세대라고 불렸다. X 세대는 혁명이나 민주주의보다 개성·자유·다양성을 중시했고, 소비성향도 강했다 (경향신문, 2015.9.29.). ‘N 세대’는 Net Generation 을 뜻하는 말로 미국의 사회학자 돈 탭스콧이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했다.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 세대를 말한다 (한국일보, 2011). ‘W 세대’는 월드컵의 앞자를 딴 명칭으로, 2002 년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을 주도했던 세대를 지칭한다. 이들은 소위 젊은이들의 특징이라고 간주되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표현하였다. ‘P 세대’는 사회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 (Participation) 하면서 열정 (Passion) 과 힘 (Potential Power) 을 바탕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 (Paradigm-shifter) 를 의미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광고대행사 제일기획이 2003 년에 처음 사용하였다.

이처럼 1990 년대부터 2000 년대까지 대중매체, 광고업계, 문화산업, 정치권, 학계, 언론 등이 앞 다퉈 세대명을 만들어냈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세대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세대명들이 등장하고, 그 작위성으로 인해 세대명명하기 유행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잠시 동안 주목을 받다가 잊혀지거나, 아예 등장한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다수의 세대명들과 달리 ‘중 2 병’은 대중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더욱이 ‘중 2 병’은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다양한 명명 중에서 십대를 특정하는 희소한 명명들 중 하나다. 각 세대명이 지칭하는 나이를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세대명은 대체로 이십대를 중심으로 십대 일부를 아우른다. 명확하게 십대만을 지칭하는 세대명은 ‘촛불세대’, ‘2.0 세대’, ‘중 2 병’ 이 전부다.

각 세대들이 드러내는 특수하고 차별적인 속성은 이들이 위치한 사회·역사·문화적 경험에 의해 구성된다. ‘촛불세대’는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십대들을 지칭하고, ‘2.0 세대’는 이것이 가능했던 배경과 그 행위를 지칭한다. 사회학자 김호기는 누구나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을 지칭하는 웹 2.0에 기반해, 인터넷 공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자아 의식과 사회 의식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십대들을 ‘2.0 세대’로 명명하자고 제안하였다(한겨레, 2008.5.14.). 당시에 한국 사회는 민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자유로운 촛불집회에 매료되었고, 새로운 방식의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주도한 십대들에게 주목하였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정치적인 주체가 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었던 십대들은 명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이에 한국의 기성세대와 십대 모두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축하하고 이들의 가능성에 고무되었다. 이처럼 촛불집회는 십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전환된 계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얼마 지속되지 못했다. ‘촛불세대’, ‘2.0 세대’라는 명명이 등장한지 불과 2년여 만에 ‘중 2 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것이다. 세대명은 명명되는 특정 세대의 특성을 지칭하는 동시에 다른 세대들이 그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인식·감정을 드러낸다. 결국 십대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긍정적 인식 변화는 촛불집회 기간에 국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세대명이 객관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에 반해 ‘중 2 병’은 오히려 이전에는 없었던 부정적 시선이 생겨났음을 보여준다.

십대 세대명의 의존성

이처럼 ‘촛불세대’, ‘2.0 세대’와 ‘중 2 병’ 사이에 단절이 발생한 이유는 십대를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가 아닌 성인 세대의 보조적 존재로 간주하는 한국의 인식에 기인한다. 한국에서 십대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보호와 훈육의 대상인 동시에 학업의 의무를 지닌다. 학업에 전념하지 않는 십대들은 ‘문제아’로 간주되고 학업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은 철없는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십대들에게 ‘촛불세대’, ‘2.0 세대’라는 긍정적인 명명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은 이십대와의 대조에서 비롯됐다.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십대들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학교 급식에 대량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십대들에게 이는 일상의 문제이면서 자신의 문제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광장으로 나와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십대들을 ‘정치적 행위’를 한다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특히 보수세력은 십대들의 판단력, 자발성, 정치성을 부정하며 십대들이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동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촛불세대’, ‘2.0 세대’라는 긍정적인 명명도 온전하지 못했다. ‘촛불세대’에 대한 조망에는 항상 이십대에 대한 비판이 따라다녔다. “아직 어린 십대들도 광장에 나오는데 성인인 이십대는 어디로 사라진 거야?”라는 비판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함의가

담겨있다. 하나는 여전히 십대를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십대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성인의 보조로 주변화시키는 관행이다. 여기에는 촛불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부터 이미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88만원 세대’가 그 중심에 놓여있었다.

2007년에 우석훈·박권일의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88만원 세대’는 한국의 이십대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88만원 세대’는 한국의 여러 세대 중 처음으로 승자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탈출구가 없는 세대를 의미한다. 저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20대의 95%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비정규직 평균 급여 119만원에 20대 평균급여에 해당하는 73%를 곱한 금액인 88만원을 세대명으로 지었다(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힘겨운 이십대들의 현실을 가늠이 가능한 수치로 표현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더욱이 이 책은 이십대들이 세대 내 경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기성 세대와의 경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십대들이 세대 간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이십대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정치·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인 기성세대에 대항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들은 이십대들에게 ‘개미지옥게임’에 들어가지 말고 “짱돌을 들라” 곧 ‘연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88만원 세대’에 대한 사회적 반향과 달리 이십대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88만원 세대』가 출판된 지 1년 후인 2008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촛불집회를 십대들이 주도하면서 십대에 대한 찬사는 곧바로 이십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한겨레, 2008.5.19.). 이는 세대명이 특정 세대의 차이를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종 다른 세대를 비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다. 이십대가 촛불집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들이 집단적·정치적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십대들을 압도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아니라 이십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시대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세대’와 ‘2.0세대’라는 명명은 ‘88만원 세대’와의 대조를 통해 십대를 부각시키고, 이십대를 비판, 질책, 자극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곧 ‘촛불세대’와 ‘2.0세대’는 의존적인 명명이었기 때문에 십대의 본질로 간주되지 못했다. 결국 촛불집회라는 사건이 사그라지자 이 명명과 함께 십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사라지고 말았다.

‘중2병’의 의미

‘촛불세대’, ‘2.0세대’라는 명명이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고 수년의 공백 이후에 그 자리를 ‘중2병’, 이라는 신조어가 채우고 있다. ‘중2병’은 어떤 시대적 맥락에서 구성되고, 기성세대와 십대 당사자들은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중2병’은 일본에서 유입되었지만 한국에서 현지화되었다. 십대들 중에서도 ‘중학생’ 그 중에서도 ‘2학년’이라는 명시는 연령주의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그럴듯한 설명체계를 지닌다.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부모에 대한 의존이 감소하는 반면, 고등학생보다 심리적으로 미성숙하고 입시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게다가 같은 중학생이어도 중1은 아직 초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채 학교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고, 중3은 고등학교 입시 준비 등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증가해 공부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중2는 양쪽 모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점에서 십대들 중에서도 ‘긴 존재’다. 긴 존

재로서 중 2는 미숙한 정신과 성숙한 신체의 부조화로 인해 자살한 반향에서 심각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일탈과 비행의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에서 십대는 ‘미성숙’ 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른들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중 2는 교사와 부모 등 어른들도 좀처럼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버겁고 두려운 존재인 것이다.

특히 십대의 특성을 지칭하는 ‘질풍노도’, ‘사춘기’, ‘주변인’ 등의 용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 2 병’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중 2 병’이 기존의 용어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한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중 2 병’을 십대 자녀와의 다양한 갈등 상황에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다. 십대 전체가 아니라 중 2를 중심으로 하는 중학생 시기에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더욱 집중된다는 것, 그리고 사춘기의 정도가 너무 심해져 정신적 질병을 연상시킬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부모들의 인식이다. ‘중 2 병’은 시간이 흐르면 낫긴 하지만, 그 시간이 흐르기를 속절없이 기다릴 뿐 어떤 개입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불치병’으로 간주된다. 한국 사회는 대부분의 십대가 딱 중 2의 나이가 아니더라도 좀 더 빠르거나 늦게, 언제라도 결국 중 2 병에 걸린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십대들은 심각한 병을 앓는 ‘환자’인 것이다.

‘중 2 병’이라는 용어의 등장은 십대 시기가 ‘유사 의료화, 질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의료화와 질병화는 부상하는 제반 문제들을 사회구조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개인에게 원인을 돌림으로써 개별화하고 사사화(privatization)하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습속이다. 오늘날 의료화, 질병화의 대표적인 예는 우울증이다. 개인적 인간관계의 불화에서부터 경제적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러 문제와 관련된 개인들의 정서적 반응은 점점 더 우울증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다. 가정불화와 가정폭력, 아동·청소년들의 학업부진과 주의력 산만, 가출, 비행, 비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나 결과로 우울증이 거론된다(정승화, 2010). 우울증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결해야 하고, 질병이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구매를 통해 치료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질병이자 담론이라는 사실은 비가시화 된다. 인류학자 이현정(2012)은 우울증이라는 용어를 한국 사회의 일상적 위험, 불안,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 우울한 사회 분위기의 은유로 규정하고, 우울증의 질병화를 통해 이를 개인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새로운 윤리로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우울증의 의료화·질병화는 우울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대중화한다. 일반인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있고,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면 얼마든지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중 2 병’의 등장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중 2로 대표되는 십대들의 사춘기가 오늘날 왜 심해졌는지, 이들이 이러한 증상을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이를 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킨다. 그러나 ‘중 2 병’은 우울증과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 우선 ‘중 2’라고 한정함으로써 일시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이 명칭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중 2의 행동들에 대한 ‘이해’가 아닌 ‘포기’, ‘치료’가 아닌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중 2 병’의 원인이 ‘중 2’라는 미성숙함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훈육과 통제를 합리화한다.

이와 더불어 ‘중 2 병’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우울증은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

하는 스트레스와 우울한 감정을 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상 범주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울증 용의자’로 지목하여 예비 환자군을 광범위하게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박혜경, 2012). 그러나 모든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되지는 않는 반면에 ‘중 2 병’은 중 2라면 누구나 이 병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 어감을 지닌다. 대부분의 세대명이 특수한 소집단의 일탈적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전체 연령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성급하게 일반화하거나, 일시적인 유행을 마치 특정 세대의 세대형상, 즉 세대의 내적인 통일성의 지표로 과장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전상진, 2002). 그 중에서도 ‘중 2 병’은 특정 학년을 지칭하는 명명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 2 병’은 실제적인 병이 아니라 십대들의 고약한 언행을 장난스러우면서도 과장되게 명명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진단하는 반면 누구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에서의 진단과 치료는 실제 의학적인 개입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2 병’이라고 명명됨으로써 마치 실제 병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찾는 등의 의료화, 질병화의 ‘병리적 패러다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중 2 병’은 비유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들은 소아정신과의사, 한의사 (경향신문, 2015. 5. 25.) 등 의료인들이 많다. 게다가 ‘중 2 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호르몬의 변화, 뇌량의 발달 등 의학적인 요인으로 설명된다 (뉴스토마토, 2015. 8. 12.). 심지어는 “‘중 2 병’ 인줄 알았더니 ADHD 더라”는 식으로 실제 질병과의 유사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디지털타임스, 2015. 5. 12.).

이러한 유사 의료화, 질병화는 ‘중 2 병’의 원인을 십대들의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함으로 돌리는 데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일상에서 ‘중 2 병’ 진단을 남발하고 있다. 대화를 거부하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게임이나 친구에 몰입하거나 등등 속을 썩이는 자녀를 ‘중 2 병’이라고 진단한다.

“우리 애는 뭘 물어도 상관 말라는 대답만 해요.”

“그럼 ‘중 2 병’ 이네요.”

“우리 애는 친구들 입을 브랜드를 꼭 사야겠다고 우겨요.”

“‘중 2 병’ 이면 그런다더라고요.”

“우리 애는 게임 좀 그만해라 하면 벌칙 화부터 내요.”

“저런, ‘중 2 병’ 이군요.”

“우리 애는 공부하기 싫어서 자퇴하고 싶대요.”

“그것도 ‘중 2 병’ 이죠.”

“우리 애는 평소엔 욕이 입에 붙었어요.”

“이게 다 ‘중 2 병’ 때문이에요.”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015: 21).

부모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언행의 원인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중 2 병’은 의학적으로 규명된 병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 치유되기 때문에 부모는 손을 놓을 수 있다. 이처럼 “‘중 2 병’ 이네요”, “‘중 2 병’ 이라서 그래요”라는 진단에는 십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포, 무기력, 체념 등이 반영되어 있다.

‘중 2 병’의 이러한 쓰임은 십대 당사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타인들만 십대를 ‘중 2 병’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대도 스스로를 ‘중 2 병’이라고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을 통해 십대는 ‘환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환자의 지위를 부여 받는다는 것은 환자가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 그에 걸맞은 행동 규범을 요구 받는다는 의미다. 또한 환자라는 지위에 의해 모종의 권한과 특권을 누리기도 한다 (박혜경, 2012). 이를 ‘중 2 병’이라는 특수한 병에 연관시켜보면 십대는 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없다. ‘중 2 병’이라는 명명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개인으로 시선을 돌리지만, 그렇다고 본인의 책임도 아닌 ‘병’이기에 자신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치료가 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본인도 완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중 2 병’은 일시적인 불치병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따라서 타인의 관심과 개입에 방어막을 치게 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일시적인 호르몬의 영향으로 치부하고 만다. 십대들은 여러 가지 문제적인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또는 친구들에게 “‘중 2 병’이라서 그래”라는 식으로 장난스럽게 넘겨버리기도 한다. ‘중 2 병’의 자칭(自称)은 십대들이 자신의 언행을 ‘합리화’하는 변명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 2 병’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 자의식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십대들의 저항적이거나 성찰적인 행동보다는 문제적인 행동들에 명명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중 2 병’ 진단은 부모, 교사, 십대 모두에게 이해를 가장한 포기, 성찰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변명, 소통에 대한 공포로 인한 단절로 기능한다.

징후로서의 ‘중 2 병’

사춘기라는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중 2 병’의 등장과 활발한 사용은 새로운 현상이다.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세대 담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의 십대는 매우 새롭고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십대의 구매력이 신장하면서 십대를 겨냥한 상품들이 홍수를 이루고, 이 안에서 십대는 자신의 취향과 욕구를 발견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신매체와 신기술에 강하기 때문에 핸드폰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소통 문화를 구성하고 있으며,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 산업의 적극적인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활동하고 있다 (손승영, 2009). 또한 ‘촛불세대’와 ‘2.0 세대’가 보여주듯이 십대들은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9년에 전국의 중학생부터 성인의 사회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2.98로 이십대 2.97과 삼십대 2.99와 거의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십대가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달랐다. 십대들은 티비나 신문보다 인터넷을 통해 사회·정치 문제 보도를 접하고 있었고 인터넷에서 의견 게시와 서명 참여 등의 활동도 활발했다 (이종원, 2009).

이처럼 문화와 정치 영역에서 십대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반면, 교육 영역에서의 십대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도태에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시대 경쟁의 심화로 인해 학벌사회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적 간극 사이에서 십대는 갈등하고 분열될 수밖에 없다. 교육 영역 안에서 십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닌 학생이라는 ‘신분’에 속박된 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들을 대입이라는 의무를 이행한 이후로 ‘유예’할 것을 강요 받고 있다. 입시 학원으로 전락한 학교에서 상위권 대학이라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공부인가라

는 회의감과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학급 친구들은 공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 상대로 전략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양한 양상의 차별이 급격히 증가했다. 학교에서 왕따, 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김연주·나영정,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기는커녕, ‘중 2 병’이라는 신조어를 방패삼아 십대의 ‘요란스러운 호르몬’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가 여전히 십대의 고민과 저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전술했다시피 십대는 어린이와 어른 사이에 긴 존재로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독립된 한 명의 인간이 되기 위한 자의식이 성장하는 시기다. 자의식의 성장으로 자신의 존재, 개성, 정의, 미래, 관계와 같은 근본적인 가치들을 고민하고 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한다. 이러한 여정에서 십대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내적·외적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단순히 공부에 몰입하지 않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갈등을 표출하는 십대는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며 기성세대와 사회에 반항하고 도전한다고 간주된다. 공부는 “때가 있다”는 이유로 십대에게 공부의 의무가 전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십대의 관계는 공부와 성적을 중심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평가할 때 인성이나 특기 등이 아니라 성적을 준거로 삼는다. 또한 십대들의 증가한 소비욕구를 이용해 성적 향상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기도 한다. 자녀가 성적을 올리면 보상으로 원하는 것을 사주는 식이다 (손승영, 2009). 같은 맥락에서 많은 부모들이 친척, 친구, 취미, 아르바이트, 가사 등은 ‘공부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제한한다. 인간관계, 경제활동, 가사노동 등 인생의 필수적인 활동들이 공부에 방해가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전방위적인 공부에 대한 압력은 십대들의 가치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정과 학교에서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존재감조차 상실되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십대 역시 공부의 중요성을 체화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입시문화가 십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서울·경기 지역 남녀 중·고등학생 56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친구, 이성, 놀이, 공부, 부모와의 관계를 묻는 항목들에서 학생들은 끊임없이 성적과 공부를 연관시켜 응답을 했다. 또한 면접 조사에서도 모든 인터뷰 내용이 ‘공부와 성적’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경진·김은정, 2009).

이러한 현실은 십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갈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쫓벌세대’, ‘2.0 세대’로 명명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십대는 도발적이고 창의적이며 용감한 존재들이다. 따라서 학생정체성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와 십대들의 자의식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십대는 가정과 학교가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도구로 전략한 현실에서 다양한 재능·꿈·개성을 부정당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갈등과 시행착오의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십대의 고민과 소외가 ‘중 2 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 2 병’은 질병이 아닌 ‘징후’인 것이다.

시기의 병이 아닌 시대의 병 그리고 치유

한국에서 십대는 어린이와 성인 사이에 끼인 존재로서 어린이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학업의 의무를 지

하지만, 성인이 지니는 권리는 부정당한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존재로 지내야 하는 수년은 십대들이 감당하기 벅찬 시간이다. 그러나 십대들의 ‘중 2 병’은 단순히 학벌사회에 대한 저항 또는 반항이 아니다. ‘중 2 병’은 학벌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학벌주의에 순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내적 갈등과 기성세대에 대한 원망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십대들은 학벌주의에 반감을 지니면서도 학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 중·고등학생 20명을 인터뷰한 연구에 따르면 십대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끊임없이 학력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접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십대들의 중요한 정체성이어서 성적이 비슷하거나 학업열을 기준으로 친구를 사귀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또한 부모에 대한 의존성도 높았다. 이는 십대들이 학업과 진로를 지원해주는 부모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김은정, 2009).

이렇게 십대들은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청소년들의 소셜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느끼는 우울감이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울감은 시간별, 계절별, 요일별로 일정한 패턴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은 등교시간, 사교육시간, 주중, 학기중에 우울감이 높았다(여성신문, 2015.10.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b). 또한 한국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지수는 50.5%로 UNICEF(유엔아동기금) 조사 대상 국가인 29개국 중 가장 높았다. 29개국의 평균인 33.3%보다 17.2% 더 높았고, 가장 낮은 네덜란드의 16.8%보다 3배에 달했다. 이렇게 높은 학업 스트레스와 낮은 학교 생활 만족도로 인해 한국 십대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삶에 대해 중간이상 만족하는 비율)는 60.3%로 역시 30개국 중 가장 낮았다. 30개국에서 27개국이 80%를 넘어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여성신문, 2015.10.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a).

이와 같은 결과는 십대들이 느끼는 현실과 이상의 간극을 드러낸다. 십대는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나름의 가치 기준을 정립하고, 인간적·사회적 정의를 지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한국 사회와 기성세대의 모순과 문제를 인지한다. 십대들은 한국 사회와 기성세대의 위선을 참기 어렵고, 삶의 지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폭력에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어른들의 간섭과 관리가 싫지만 그것이 경쟁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결국 십대는 어른들이 원하는 대학 입시를 위한 삶을 살면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편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자신의 신념과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며, 어느 어른처럼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끼며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중 2 병’ 증상은 십대 나름의 표현 방식으로 해석된다. ‘중 2 병’ 증상으로 꼽히는 허세, 분노, 침묵, 거절, 태업 등은 십대가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위한 시도이고, 권위와 권력에 저항하는 방식이며, 자신의 지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인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와 기성 세대에 대한 실망이 주된 정서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어른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한 중 2 학생은 “괜히 허세를 부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중 2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다. 나 답답하다고, 좀 도와 달라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 2 학생은 “중 2가 보는 어른들이란? 자기들은 멋대로 행동하면서 우리더러는 똑바

로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지 뭐. 죄다 똑같다.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네. 빨리 어른이 되든지 해야지” 라고 했다. 또한 “어른들은 우리 애가 중 2가 되더니 도통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엄마랑 대화도 거부한다고 그러다. 참 나,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나야말로 정말 대화하고 싶다. 어찌다 용기를 내서 내가 먼저 엄마한테 고민을 꺼내 봐도 돌아오는 말이라고는 고작 ‘쓸데없이 헛된 꿈이나 꾸지 말고 공부나 해. 더 크면 다 알게 돼’. 이런 딱 막힌 대꾸가 나올 줄 알았다. 입만 열면 그저 공부, 공부, 공부! 엄마 잔소리가 우리를 반항하게 만드는 최대 원인이다.” 라고 한 중 2도 있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015).

게다가 십대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러한 감정은 한국 사회와 기성세대라는 외부로만 향하지 않는 것 같다. 십대는 자신이 이해 받지 못한다는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무기력감을 느끼면서 조금씩 냉소와 체념을 익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대한 저항과 체념의 혼재가 십대들이 스스로를 ‘중 2 병’ 이라고 명명하는 맥락일 것이다.

이처럼 ‘중 2 병’ 은 한국 사회에서 십대들의 현실을 징후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다. 십대를 훈육과 관리의 대상으로, 공부를 위해 현실을 저당 잡아야 하는 학생으로 간주하는 폭력성은 십대에게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사회에 대한 분노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십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십대들은 대학입시가 아닌 자기 고유의 삶의 목표를 탐색하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명의 성인으로 성장해갈 것이다.

사실 본 연구는 십대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전술하였다시피 ‘세대론’ 이나 ‘세대명’ 의 가장 큰 한계는 특수한 소집단의 일탈적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을 전체 연령집단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성급하게 일반화하거나, 일시적인 유행을 마치 특정 세대의 세대형상, 즉 세대의 내적인 통일성의 지표로 과장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 역시 ‘중 2 병’ 을 세대론으로 접근하면서 이러한 일반화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십대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도 이러한 명명 자체와 일반화로 나타났다. 십대들과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3.5촌기부터 중 2 병까지 - 어른들을 향해 외치는 우리 시대 10대들의 목소리』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2015) 에서 십대들은 ‘병’ 이라는 명명이 답답하고 불쾌하다고 반응하였다. “어른들은 ADHD 랑 결부시켜서 중 2 를 죄다 정신병자 취급한다. 아니면 왕따 가해자나 살인범, 성범죄자랑 연관 시킨다”. 또한 십대들은 ‘중 2 병’ 이라는 명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었다. “난 중 2 긴 해도 스스로 중 2 병에 걸렸다고 느껴 본 적 없다. 어른들이 말하는 그런 중중 중 2 병에 걸린 애들을 주변에서 본 적도 없다” 고 말하였다.

이러한 십대들의 반응은 ‘중 2 병’ 이라는 명명의 과도한 일반화와 폭력성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비판하기 위해 ‘중 2 병’ 을 ‘세대론’ 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십대들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를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권재원. 2015. “중 2 병이 아니라 중학교병”. 『우리교육』 2015년 여름호 : 26-27.

- 강영배 . 2013.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 진로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일본학회 . 『일본문화연구』 46: 5-31.
- 김성운 . 2014. 『18 세상』. 북인더깍 .
- 김연주 · 나영정 . 2013.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기억과 전망」 28: 312-356.
- 김은정 .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학생으로서의 정체성’ 수용 과정.” 「한국사회학」 43 (2): 85-129.
- 김현수 . 2015. 『중 2 병의 비밀 - 초등 4~ 중 3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요즘 사춘기' 설명서』. 텐스토리 .
- 노규식 . 2015. 『중 2 병 완전정복 - 아이는 방황해도 성적은 방황 말자!』. 골든타임 .
- 도종진 . 2009. “일본의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 법률과 청소년보호 지원체계”. 한국소년정책학회 . 『소년보호연구』 12: 99-130.
- 박재홍 . 1995. “신세대의 일상적 의식과 하위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학」 29: 651-683.
- _____. 2003. “세대 개념에 관한 연구 : 코호트적 시각에서.” 「한국사회학」 37 (3): 1-23.
- 박혜경 . 2012. “우울증의 ‘생의학적 의료화’ 형성 과정.” 「과학기술학연구」 12 (2): 117-157.
- 성윤숙 · 손병덕 . 2014. 「스마트시대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의 성 상품화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 손승영 . 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 부모의 기대와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 (1): 57-84.
- 송태민 · 진달래 . 2015. “일본의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히키코모리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포럼』 219: 86-100.
- 오해섭 · 맹영임 . 20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 우석훈 · 박권일 . 2007. 『88 만원 세대』. 레디앙 .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차한솔 .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 이승연 . 2014. “한국 청소년의 도덕교육과 마음교육 : 일본의 마음교육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54: 221-246.
- 이승연 · 노성호 · 박상욱 . 2014. 「청소년따돌림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 이종원 . 2010. 「2009 세대간 사회의식 비교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 이진아 . 2014. 『중 2 병 엄마는 불안하고 , 아이는 억울하다』. 웅진씽크 .
- 이창호 · 김경희 · 장상아 . 2013.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 이현정 . 2012. “1991 ~ 2010 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살펴본 한국 우울증 담론의 변화와 그 문화적 함의.” 「한국문화인류학」 45 (1): 43-88.
- 전상진 . 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 세대개념의 분석적 구분.” 「한국인구학」 25 (2): 193-230.
- 정승화 . 2010. “감정 자본주의와 치유 문화.” 『친밀한 적』. 이후 .
- 정재걸 · 이승연 · 이현지 · 백진호 . 2015. “한국 청소년 죽음교육 모형 개발 : 일본 청소년 죽음교육 모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8 (2): 325-356.
- 정재준 . 201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한국·일본의 비교법적 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 53 (2): 79-108.
- 조경진 · 김은정 . 2009. “입시문화와 청소년기.” 「교육인류학연구」 12 (2): 71-101.
-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 2015. 『3.5학기부터 중 2 병까지 - 어른들을 향해 외치는 우리 시대 10 대들의 목소리』. 다산 에듀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b,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현황과 위험요인 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의 주관적 웰빙수준과 정책과제 연구」.
- 신문 -
- 경향신문 , 2015. 5. 25., “중 2 병과 마음의 여백”.
- 경향신문 , 2015.9.29., “신세대 논쟁.”
- 뉴스토마토 , 2015. 8. 12., “'중 2 병' 은 공부 강요로 만들어진 병”.
- 디지털타임스 , 2015. 5. 12., “중 2 병 우리 아이 ADHD 증상 심하다면 , 어떤 치료가 도움될까? ”.
- 여성신문 , 2015.10.27., “우울증 늪에 빠진 청소년들”.
- 중앙일보 , 2013.4.6., “‘중 2 병’ 은 전 세계적 현상.”
- 한겨레 , 2008.5.14., “쌍방향 소통 ‘2.0 세대.’ ”
- 한겨레 , 2008.5.19., “그 많던 20 대 ‘광장세대’ 는 어디로 갔나.”
- 한국일보 , 2011.10.28., “2040 투표반란 , 그들은 N 세대다.”

- 웹툰 -

임인스 . 2010. 「싸우자 귀신아」.